

탄자니아의, 12 월달부터 3 월까지의 가장 혹독한 더위를 이제 막 넘기며 진짜 아프리카 더위맛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 크리스마스와 구정을 보내며, 옛날에 진짜 4 계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계절의 감각을 잃어가고있는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집 안에선 각양각색의 도마뱀들이 여기가 마치 자기집인 양, 저희집 안팎을 휘젓고 돌아다니고, 개구리들은 제각각 힘차게 울어제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공포의대상인 모기는 한도끝도 없이 저희피를 빨아먹어서, 이더운날 집에서 긴팔 티셔츠, 긴바지에 양말까지 껴신고있습니다. 이럴때 전기라도 나가면(수시로 나감) 방어를 못하는 저희는 빨리 모기장이있는 방으로 피신을 합니다. (어떤모기가 말라리아 모기인지 알수가 없으니..) 다행히 오늘밤엔 전기가 안나가네요. 또 본적도 들어본적도 없는 요상하고 징그러운 벌레와 곤충이 집 안팎으로 돌아다녀서 겁이 많은 정미라선교사는 수시로 비명을 질러대고 있습니다. 오늘 학교부지에서 하얀 뱀이 죽어있는걸 본 정미라선교사의 반응은 그냥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성구선교사는 이곳이 아름답다고하고, 정미라선교사는 이성구선교사를 이해못한다하고... 이젠 그동안의 저희사역을 나누겠습니다.

UAUT 대학교사역

이제 2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개교 후 첫학기를 지내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이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근 한달의 방학 기간 동안 게스트하우스를 열심히 지어 지금 기초공사를 마쳤습니다. 공대학장으로 사역하는 이성구선교사는 턱없이 모자라는 교수 확보에 힘을다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능력있는 교수들이 이곳에 자비량으로 자원하는 일이 극히 드물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교수사역외에도 학교내 교회의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며, 또 섬기는 현지인 교회에서도 틈틈히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겸하고 있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구제/복음 사역

정미라 선교사는 Community Outreach Volunteer (현지 복음화 사역자) 자격으로 정부로부터 Work Permit 을 신청해 기다리고 있으며, 현재 그 사역을 위해 준비하고 있고, 또 현지 언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이곳 Community Center 나 현지교회를 통해 현지인들과 함께 일하며, 이들의 아픔과 현실을 파악하고 도움을 주는 사역입니다. 지금 현재는 현지인 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그 교회를 통해 현지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준비하고있습니다. 아직 죄에 물들지 않은 어린아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삶의가치와 세계관을 심어 주고, 그들을 장차 아프리카를 이끌고 갈 훌륭한 지도자로 키우려고 합니다.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이 그렇지만 문맹률이 높고, 어릴때부터 자연스럽게 이곳 자기네 문화를 무작정 따라 살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지인들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국민학교를 마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살기 때문에, 중학교를 졸업하는 것도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나마 학교도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만 이들이 가난과 이 어두움을 벗어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 도둑질은 예사고 도덕, 질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매일 바이블 캠프를 운영하여 성경 공부와 찬양, 그리고 이곳에서 성공하기위에서 필수인 영어를 가르치며, 재밌는 Crafts 와 게임 등을 통하여, 태어나자마자부터 모슬렘이 되는 운명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야만 하는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주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기독교정신을 심어주려는것입니다. 또 먹을것을 제공하여 배고픈아이들을 먹일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Work Permit 이 나오는대로 시작할것이므로 빠르게는 다음주 혹은 다음 달에라도 시작할 수있습니다.

현재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쓸만한 마땅한 책자와 노래집이 전무한 상태라 아이들이 쉽게 볼수있는 성경동화책과 복음송 책을 만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책자들을 아프리카 구석구석 배부하여 다른 선교사님들도 쓸수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경동화책을 인쇄해 줄 후원자가 필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일을 위하여 기도해주시고 또 적극적인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섬기는 현지 교회 예배 모습 (야자 나무로 엮어 예배당을 만들어 비가오면 새는등 허술하기 짝이없음)



맛사이 부족 탐방

학교 방학 동안 저희들은 탄자니아의 많은 부족중 하나인 맛사이 부족이 사는 아루샤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거의 15 시간걸리는 거리를 열악한 버스를 타고, 아프리카길을 갔다오는데는, 저희들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처참했습니다. 2000 미터나 되는 고지대에서 살고있는 그들은 제대로 된 마실 물을 얻을 수 없어서, 비가 와서 고인 웅덩이에서, 소나 다른 동물들이 마시면서 똥오줌을 싸 놓은 물을 떠다 마시고 있었습니다. 쇠똥과진흙으로 만든 1-2 평 남짓한 집에서 여러식구들이 함께살며, 그 좁은 집안에서 불을 지펴 음식을 해 먹고, 밤에는, 기르는 염소나 닭을 들짐승으로 부터 보호하기위해 그 짐승들을집에들여 와 함께 자는 기막힌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있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집안에 꽉찬, 배어 있는 연기로 질식할 것 같아 저희는 곧 뛰쳐나올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은 파리와 모기가 득실거리는 쇠똥 진흙집 그 안에서 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사탕을 주었더니 순식간에 수많은 파리들이 아이얼굴에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도 또 아무도 파리를 쫓을 생각을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수있는게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할수있었던건 고작 옥수수한포를 (한달 식량) 각 가정에 나누어주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짧은 스왈리언어로 말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주는것 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은 후원자들의 도움아래 물이필요한 그들에게 빗물을 받아 모아서 쓸수있는 물탱크와 수도시설을 만들어놓고 동네사람들에게 나누어주시고, 또 교회를 개척하여 실질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움을 주며,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로운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자기네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용감하다고 생각하는, 자부심이 강한 맛사이 부족은 소를 치는 부족으로, 소의 숫자로 부가 정해지며, 신부값으로 소만 많이 주면, 어린 딸들을 남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결혼을 시킵니다. 남자아이들은 어릴때부터 학교에 가는 대신 자연스럽게 그냥 소치는 목자가 됩니다.



15 에서 18 살정도가 되면 성인식이라는 마귀적 행사를 통해 어른이되는 식을 올리는데 여자들도 할례를 받는등 아직도 그들의 풍습이 그대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삶을 경험하며 새로운 인생을 사는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바탕으로 교육을 받는 길만이 그들이 사는길이라고 또 한번 생각했고 그런일들을 하는것이 우리 이곳 선교사들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잃은 생명 살릴 수 있는 이런일들을 할수있다는건,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수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런저런 기도가 필요한 개인일들

저희 큰딸 지현이가 미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하이오에 있는 Wright State University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St. Louis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는데, 이번에, 의과 대학 다닐 때 클래스메이트였던, 역시 의사인 믿음이 신실한 청년과 5 월달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앞으로 의사선교사가 될 지현이가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땅에 가기 전까지 레지던트 과정과 남은 모든 과정을 무사히 잘 마칠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요. 저희는 딸 결혼식 참석을 위해 한 2 주간 동안 미국에 다녀올 계획입니다. 원래는 3-4 일정도만 급히 다녀올생각이었으나 워낙 비용을 많이 들여 하는 여행인 데다가, 가는길에 UAUT 에 필요한 교수님들을 찾아 봐야 하고, 앞으로 이곳 아이들 사역에 필요한 어린이 성경책과 복음송, 음악을 가르치기위한 키보드등의 물품도 구입해야 하고, 또 후원자확보 및 선교 보고를 위해 몇교회를 다녀올계획도 있어서 2 주 정도 시간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캐나다에 사는 청이와 영이가 저희들을 만나러 미국에 온다고해서 아이들을 며칠이라도 볼수있어서 얼마나

기쁘지요. 특히 청이는 올해 Waterloo 대학 건축학과를 졸업 하는데, 저희들이 졸업식에 참석을 할수없어 너무 안타깝고 미안했는데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안전을 위해 여러 선교사들이 함께 컴파운드에서 생활을 하였는데, 집은 좁고 허술하며, 전혀 세입자들을 돌보지 않으면서도 월세를 터무니없이 올리는바람에 할수없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이사온집은 전에 살던곳과 집세는 똑같으면서도 훨씬 더 괜찮은 집입니다. 하지만 언제 도둑과 강도가 들지모르는 위험에 노출된상태라 저녁때면 쇠창살문을 다 잠그고 사는데, 그래도 늘 불안불안 합니다. 최근에 저희 동네에 사는 두 선교사님집에 총을 든 강도들이 들어와서 경비원이 죽고 강도들도 몇이 죽은 사건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그 중 한 선교사님은 눈과 손에 가벼운 부상을 입고 끝났지만 이런일들은 언제 누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라, 저희들은 때강도들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하여, 그들에게 줄 현금을 따로 장롱에 준비해놓고 살고 있습니다. 기도해주십시오.

저희가정은 현재 차 구입을 놓고 기도중에 있습니다. 이곳의 교통편이 열악하고 위험할뿐만이아니라 마땅한 교통편이 없기때문에 차가없이는 끔찍못합니다. 이젠 사역을 넓히는등 차 구입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차구입을 현지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오더해서 가지고 오기때문에 자동차 값외에도, 정부에 내야되는 세금과 배송비, 이곳 항만세등 큰돈이 들어 갑니다. 특히 항만세는 차가 도착한 후 차를 찾을 때까지 매일 누적되어 부과되는데, 돈을 더 많이 부과시키기 위해, 일부러 차를 내어주지 않는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또 그럴 경우 추가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수 있어서 기도 중입니다. 한시가 급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기도제목

1. 이성구목사와 대학교 교수진 확보를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2. 정미라선교사의 Community Outreach 사역이 잘 준비될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3. 강도와 도둑으로부터 저희들이 안전할수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4. 말라리아와 장티푸스등의 질병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5. 차 구입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6. 저희사역을 돕는 후원자들이 많이 생길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7. 저희 자녀들의 건강과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 (지현, 찬우, 청, 영) 기도해주십시오.

후원정보

후원자여러분들의 편리를 위해 한국과 캐나다에 저희를 돕는 코리네이터가 후원에관한 모든 업무및 후원금관리를 도와드립니다.

이성구선교사(탄자니아): 011-255-782-003-651/sklee1224@hotmail.com

정미라선교사(탄자니아): 011- 255-788-429-606/miralee1029@hotmail.com

후원계좌

한국: 국민은행 331337-04-002245 (탄자니아대학교후원회: 후원선교사: 이성구/이미라앞)

(한국 코디네이터: **이애희** 010-9501-5456 / Email: ah5456@naver.com)

캐나다: CIBC 01702-75-70384 (**캐나다** Coordinator: **이 청** 519-729-5228 / Email: michaelchung@live.ca)

수표를 보내실분: Toronto Bethel Church, 1155 College St, Toronto, ON M6H 1B7 (후원선교사: 이성구/이미라앞)

Paypal: miralee1029@hotmail.com

1 월달 - 3 월달까지 후원자명단 (감사합니다. 혹시 누락되신분들은 꼭 연락바랍니다.)

캐나다 성결선교회, 하늘소리교회, 약수동 성결교회, 김기룡, 임희윤, 이양옥, 심은정, 정명구, 정승우, 이애희, 김미정, 박종혁, 한승준, 유장혁, 조희상, 우순자.

그외 순간들.....



선교지에서 맞는 정미라선교사 첫번째 생일기념축하...



작년 대학교행사 추수감사절예배 전에 찰칵..



매주 토요일 아름다운 인도양에서 드리는 새벽기도후
대학 총장님, 부총장님 그리고 교수님들과 함께....



개미들이 지어논 개미집들... 사진속 개미집은
작은사이즈, 큰것은 처음엔 산인줄 알았음.
장난아님. 일 진짜 열심히 함.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은 나무밑에서 열심히 놀고...